Interview

Nan Ellin

낸 엘린

Dept. of City & Metropolitan Planning, University of Utah
유타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정의한다면?

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생태적, 문화적 시스템과 건물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조경과 도시설계를 결합시킨 것으로 폭넓게 정의한다. 이 개념은 사실 오래 전부터 존재해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말하자면 자연적 요소와 구조물, 그리고 장소의 전통성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심지어 산업사회 이전 특히 고대 인도건축이나 동양의 풍수와 같은 개념에서도 존재해왔으며 산업사회와 후기 산업사회에는 하워드의 전원도시 이론을 시작으로 미국의 지역계획협회, 영국의 타운스케이프 운동, 경관생태학, 도시생태학, 모방생물학 등의 개념과 더불어 확산되어 왔다.

하지만 지난 한 세기동안 빌딩산업의 영역과 복잡성이 더욱 확대됨에 따라 건축, 조경, 도시계획, 도시설계 등 세부적 분야로 분화되면서 서로간의 협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경쟁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의 건축 환경

What is your best definition of Landscape Urbanism?

I define landscape urbanism broadly as the combination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through interweaving ecological, building, and cultural systems. This concept has been around a very long time - shaping places with an eye toward integrating natural settings, structures, and the traditions of a place. It was prevalent during pre-industrial times with, for instance, Asian geomancy (or feng shui) and Vedic architecture. And it then emerged sporadically during the industrial and post-industrial periods with the garden city, the Regional Planning Association of America, the British townscape movement, landscape ecology, urban ecology, biomimicry, and others.

As the building enterprise expanded in scope and complexity over the last century, however, we divided labor into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planning, and urban design. While it had grown essential to specialize, there was an unfortunate lack of collaboration among these fields, indeed at times, even a competition. Many of the problems in our built environment over the last century can be attributed to this lack of collaboration. When people are brainstorming with one another, bringing their various areas of expertise to the table, and synthesizing them, we produce better outcomes. But when we start having turf wars, that does not happen.

Many realized this problem and have been working to correct it by bringing the disciplines and professions back together in a beneficial way, particularly since the 1990s. I describe these efforts collectively as "restorative urbanism" . Restorative urbanism engages in co-creation, ensuring we recognize cultural

속에서 발견되는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이러한 협력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우리가 서로 한 테이블에 앉아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다양한 전문지식들을 모아 종합적으로 취합할 때 보다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만, 서로간에 상대를 이기려는 경쟁을 시작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1990년대 이후, 사실 많은 이들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바로 잡기 위해 다양한 전문분야의 공동 협력을 도모해왔다. 나는 이러한 노력들을 한마디로 "환원적 어바니즘"이라 정의하고 싶다. "환원적 어바니즘"은 공동 창조 속에 이루어지며 이는 생태적 시스템뿐만 아니라, 문화 역사적 전통과 지역공동체, 그리고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 과거의 노력들과 다른 나라들에서 진행된 노력의 성과물들을 폭넓게 인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공동창조" 혹은 "함께 창조한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관련된 이익 당사자들의 협력은 물론, 동시대 다른 이들의 노력들과 대상 부지의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상황에 대한 이해를 통해 가능하다. 따라서, "환원적 어바니즘"은 이러한 방식을 통해 백지상태에서 접근한다기 보다는 특정 장소의 주어진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문제 혹은 결함의 발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과 가치의 발견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현존하는 장점과 중요한 전통을 인식하고 지역 공동체를 참여를 아우를 때 "환원적 어바니즘"의 틀 안에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기존 건축과 도시설계를 대체하려 한다거나, 프로그램 보다는 부지의 형태만을 중시하는 기존 접근들만을 비판한다면 결코 "환원적 어바니즘"을 설명할 수 없다.

미국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학문적 움직임이나 실무적 적용 현황은 어떠한가?

내가 거주하고 있는 미국 서부지역은 광활한 산맥과 험준한 사막 기후 등이 경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쳐 왔으며, 이에 따라 환경에 대한 고려는 환경적으로 덜 민감한 동부지역에 비해 도시설계 분야에서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서부지역의 디자이너들이 장대한 서부경관에 대한 경외감과 이에 순응하는 자세로 인해 디자인을 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더 겸허하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에 대한 보편적 확산으로 인해, 미국 대학의 건축 전공들은 경관과 생태에 관한 이슈들을 기존 건축 및 도시전공 커리큘럼에 포함시켜 왔다. 예를 들면, 유타대학의 경우 학부의 도시계획 학위 이름을 도시생태로 바꾸는 한편, 생태디자인, 환경계획, 시스템 다이내믹, 생태시스템 연구 등에 관해 더 많은 과목들을 커리큘럼에 추가했다. 몇 년 전 나는 이안 맥하그의 업적을 토대로 "The New Design with Nature"라는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최근의 도시설계의 경향이 자연생태 시스템에서 영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점점 확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and historical traditions as well as ecological systems, local communities, and other existing assets, including work done previously in a particular place and related practices elsewhere around the globe. Co-creation, or creating together, translates into professional collaboration, working with stakeholders, and recognizing context—historic, social, political, economic, and geographical—as well as contemporary best practices. In this way, restorative urbanism builds upon given assets of any particular place, rather than presume a tabula rasa. It begins with these givens—or gifts—rather than with problems and deficits.

Landscape urbanism would figure within the restorative urbanism efforts when it recognizes existing strengths and important traditions and when it engages communities. It would not demonstrate restorative urbanism, however, when it attempts to supplant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or ascribes priority to site and form over program.

Tell us about academic movement or practical applications of Landscape Urbanism in the U.S.

Since the western landscape of the US is very dominant, with grand mountains and some extreme desert climates, a consideration of the environment has long been important for good urban design, while the eastern US has been less challenging environmentally. As a result, I find there is more humility amongst designers in the west, along with a deep awareness that our interventions should honor the majestic landscape in which we live.

Thanks to the widespread concern for sustainability, architecture curricula nationwide have been integrating issues regarding landscape and ecology into architecture and urbanism curricula. For example, at the University of Utah, we renamed our undergraduate Urban Planning degree Urban Ecology and introduced more courses in ecological design, environmental planning, systems dynamics, and ecosystems studies. Several years ago, I reviewed the broad tendency within contemporary urban design to draw inspiration from natural systems in an article titled "The New Design with Nature", since this work builds upon the important contributions of Ian McHarg.

What do you think about strengths and weaknesses of Landscape Urbanism?

For theorists and practitioners, I think landscape urbanism holds tremendous appeal because it addresses pressing contemporary concerns about reconciling the natural and built environments as well as the many post-industrial sites that were regarded as "no man's lands." Landscape urbanism has been very successful in bringing more attention to the need to integrate landscape and urbanism. While that integration had been commonplace in the past, the two diverged, and landscape urbanism has contributed to a welcome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견해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이론가와 실무자들에게 굉장한 어필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후기 산업사회에서 파생된 버려진 수많은 땅들에 대한 관심 뿐 아니라, 자연과 인위적 환경의 조정에 대한 최근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랜드스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경관과 어바니즘을 함께 연결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에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다는 차원에서 매우 성공적이라 볼 수 있다. 비록, 그 연결성은 과거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독특한 21세기적 해석과 적용으로 분절된 경관과 어바니즘의 화해를 시도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또다른 장점은 모든 스케일에 동시다발적으로 기능하는 프로세스를 중시한다는 것이다. 또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폐부지의 창의적인 재생과 이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더 큰 사회문화적 맥락과 인간성, 그리고 우리와 땅과의 유대관계를 도와주기 위한 디자인의 목적을 외면한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특히 그것이 디자인의 사회적 측면, 즉 평등문제와 접근성, 편안함, 웰빙 등을 무시하거나 지역주민들이나 역사를 외면할 때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성공하는데 있어 또 다른 장애물은 가치발견이 아니라 문제발견에서 출발하는 접근방식의 문제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지금까지의 건축과 조경, 도시계획, 도시설계 등이 이루어온 성공적인 부분들을 조명하고 발전시키기 보다는 이들의 문제점들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들이 이루어온 성과물들과 장점을 모두 외면할 위험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나는 도시설계가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도시계획과 설계에 대한 비판이 도시이론의 작은 일부분, 즉 뉴어바니즘의 초기적 관심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사실, 뉴어바니즘이 제시했던 초기적 관심에 대한 비판은 이미 널리 알려져 왔고, 뉴어바니즘 또한 스타일과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가지며 그 비판들에 대응하기 위해 진화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본인은 『Postmodern Urbanism』과 『Integral Urbanism』이라는 두 책을 통해 다양한 생태적 어바니즘에 초점을 맞춘 보다 넓은 영역에서의 도시설계 이론과 실무에 대해 소개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기존 도시계획과 도시설계 모두를 외면하기 보다는, 그들의 쌓아놓은 성과물과 경험들, 즉 자연과 인위적인 네트워크—등고선, 야생동물 통로, 바람통로, 수로, 인프라스트럭처, 교통망, 비행항로, 보도, 토지소유 및 배관로, 조망선—로부터 영감을 얻는 농업적 어바니즘과 도시설계 실무로부터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rapprochement with a distinctly 21st-centu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Another strength of landscape urbanism has been the emphasis on process and operating on all scales simultaneously. In addition, landscape urbanism has contributed to the creative reclamation of brownfields and significantly increased attention, at all levels, to improving these sites.

Landscape urbanism is less successful when it fails to adequately address the larger context and the purpose of design to support humanity and strengthen our connection with the land. It can be particularly disappointing when it neglects social aspects of design—equity, access, comfort, and well-being—and does not engage communities or history. Another hurdle along the path to success for landscape urbanism has been the tendency to begin from the vantage point of problem-finding, rather than asset-finding. Instead of building upon the successes of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planning, and urban design, for instance, it has tended to highlight their shortcomings, and thereby dismiss them entirely.

As an urbanist, I can speak to its critique of planning and urban design that is actually only leveled at one small part of these larger fields: an old version of the New Urbanism. The critique of the old New Urbanism is widely-understood and the New Urbanism has evolved accordingly by addressing issues regarding style, sustainability, and more. My books "Postmodern Urbanism (1995)" and "Integral Urbanism (2006)" describe a much wider range of urban design theory and practice, with a spotlight on various ecological urbanisms. Rather than dismiss planning and urban design wholesale, landscape urbanism would be well served by learning from, and building upon, their many contributions such as agrarian urbanism and urban design practices that derive inspiration from existing natural and constructed networks including contour lines, wildlife corridors, wind corridors, waterways, infrastructures, transit lines, flight paths, pedestrian paths, property lines, utility lines, and lines of sight.

In sum, landscape urbanism holds great appeal and promise as a welcome antidote to much that ails our contemporary places. On closer look, however, many have found the theory of landscape urbanism to raise more questions than it answers. And, in practice, landscape urbanism has to-date produced parks, no different from what landscape architects were already designing. Landscape urbanism could benefit from recognizing and building upon existing strengths in collaboration with all the design fields, as well as by addressing social aspects of design and engaging communities in a significant way.

Which projects that you know of do you think best reflect the concept of Landscape Urbanism, and why?

If we define landscape urbanism broadly to include widespread efforts to bridge landscape and urbanism, there are many interesting projects that engage the physical

물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현대의 장소성에 대한 번민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호소력을 가지고 있으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론은 해결책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낳게 한다. 또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결과물은 그동안 조경가들이 이미 해오고 있는 "공원 만들기"와 크게 다를 바 없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더욱 성공적으로 진화하기 위해서는 디자인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고 적극적인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의 장점들을 발견하고 이를 스스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이 잘 반영된 작품과 그 이유를 든다면?

우리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경관과 어바니즘을 연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폭넓게 정의한다면, 여러가지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모두 물리적 환경뿐 아니라 그 안에서 발생하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이내믹하게 진화할 수 있는 자가적응 피드백 메커니즘을 생성하는 생명체들까지 고려하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피닉스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커넬스케이프 프로젝트는 도시지역 전체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심지어 1천년전부터 이미 설치, 이용되어 왔던 운하 네트워크의 가치에 주목하고 이들이 주요 도로와 만나는 지점을 도시의 활기넘치는 허브로 창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때론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인프라스트럭처의 비전을 새롭게 제시한 것으로, 운하를 복합적 토지개발과 도시경제의 활력을 생성하는 공공장소로서 재창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나는 이를 위해 "공동창조"라는 기치아래, 2개 대학 11개 학과에서 선발된 40명의 학생들과 2명의 다른 교수들과 함께 프로젝트 과정에 지역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운하와 관련한 과거의 노력들과 지금까지 이루어진 국제적인 커넬어바니즘의 성과들을 면밀하게 조사했다. 우리는 또한 미국건축가협회에서 주관하는 작품 공모전에 응시하기 위해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건축, 조경, 도시계획, 개발 등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팀을 만들어 협력했으며, 커넬스케이프의 다양한 가능성과 가치의 비전을 발전시켜 출판, 전시, 웹사이트 등을 통해 많은 이들과 공유하고자 노력했다www.canalscape.org. 그 결과 커넬스케이프는 3개의 논설 코너와 다양한 학술 저널에 소개되었으며 애리조나주와 피닉스 시정부, 그리고 미국도시계획가협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연구펀드와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여러 명의 학생들의 석사 및 박사논문의 주제로 채택, 커넬스케이프의 학문적 지평을 넓혀가고 있고, 한 시민 단체가 이를 주요 이슈로 채택해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현재 다양한 커넬스케이프 프로젝트가 채택되어 진행중에 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이해한다는 것은 조경가들의 일상적 실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는가?

우리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경관과 어바니즘의 결합으로 넓게 정의한다면, 조경가와 도시계획가, 도시설계가,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생산적인 협력에 중요한 동기를 부여할 것이다. 우리는 이를 통해 모든 사람들을 위한 더욱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장소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진행 · 번역 김진오 | 사진 박상백 | 디자인 이은미

environment as well as the life that takes place within it, generating a self-adjusting feedback mechanism that is capable of evolving dynamically over time without the initial designers. For instance, the canalscape project for metropolitan Phoenix aims to leverage that region's vast network of canals, originally built by the early inhabitants of the region over a millennium ago, by creating vital urban hubs where canals meet major streets. This project re-envisions an underutilized, and often maligned, infrastructure as a vibrant public space around which mixed-use development occurs, bringing prosperity through urban and economic revitalization.

In the spirit of co-creation, I worked with 40 students and 2 other faculty members from 11 departments at two universities to engage local communities and thoroughly survey past work related to the canals as well as best practices of canal urbanism globally. We also engaged the professional design communities with a competition sponsored by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that required teams comprised of architects, landscape architects, planners, and developers as well as community engagement. We collectively envisioned an array of possibilities for canalscape and shared this work through a publication, exhibition, and website (www.canalscape.org). Canalscape has been featured in 3 major editorials as well as numerous other articles. It was awarded an Arizona Humanities Council Grant, recognized by the Mayor of Phoenix as a Green Phoenix initiative, designated an Arizona Centennial Legacy Project by the Arizona Governor's Centennial Commission, and presented with an Arizona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Award. The project has taken on a life of its own as several students continue to pursue strands of this research for their masters' and doctoral theses, a civic organization has taken it on as a focal project, and numerous actual canalscapes are underway.

How would understanding of Landscape Urbanism make a difference for landscape architects to improve their everyday practices?

If we define landscape urbanism broadly as the integration of landscape with urbanism, it would support productive collaborations between landscape architects, urbanists, and communities, thereby contributing to enhance the vitality and vibrancy of places for all people.